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이승우



미리 밝히는데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즐겨 시청하는 편이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의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았다. 옛것지 우리 대표팀과 보스니아의 평가전도 놓치지 않았다.

은 깊어가고, 선거철이지만 지지하고 싶은 정당도 없고 찍고 싶은 인물도 없지 않은가. 도무지 사는 재미가 없지 않는가.

텔레비전의 호들갑스러움

한다. 그런데 이 놀라운 힘은 정말로 축구의 힘일까. 경기를 중계하는 텔레비전 없이도 월드컵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눈치 챌 수 있다.

전해주는 텔레비전의 영상이 아니라면 축구나 월드컵의 매력은 한참 줄어들 것이다. 사실 월드컵의 열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축구나 피파의 힘이 아니라 텔레비전의 힘인 것이다.

최근 우리 텔레비전들은 축구와 월드컵에 지나칠 정도로 뜨거운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너무 친절할 텔레비전 덕택에 우리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와 16강을 다룰 같은 조 국가의 축구 스타일이나 개개 선수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소식이 월드컵의 개최국 독일에서 들려왔다. 그쪽도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모양인데(왜 그렇지 않겠는가), 과다한 월드컵 방송에서 해방되자는 취지의 '축구 자유시대' 캠페인이 베를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02년 4강 신화의 감격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응원할 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차별 없이 하나된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그 감격과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예감과 기대로 설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고영만



수출업계가 연일 지속되는 환율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달러당 950원대에서 수출채산성이 한계점에 도달했거나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전체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84년까지 떨어졌으므로 10년 동안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일본내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촉진되면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환율하락 위기 극복의 확실한 방법

다음으로는 기업을 지속하려면 종업원에게 급여를 쥐어 하는데 급여 등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면 밑지면서도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만 지금과 같은 환율하락 위기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내성을 기르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같이 지속적인 원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어떤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우선 줄이기 쉽고 당장 타격이 없어 보이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축소하는 수출업체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등산객 위해 산에 화장실 설치했으면

주 5일제에 의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 도내 유명산을 많이 찾아 다니면서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문에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보는 민망한 장면도 종종 접한다. 그나마 남자들은 낫다. 여자들의 경우 장소를 찾지 못해 짐뽁을 흘리며 산을 오르거나 도중에 등산을 포기, 내려오기도 한다.

독자마당

쇼핑몰 지나친 홍보성 댓글, 소비자 혼란 가중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소비 경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매자들의 상품평이나 댓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들의 일방적인 광고·홍보보다 같은 구매자들끼리 정보교류인 상품평·댓글이 활성화돼야 사이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취 있는 듯 하더니 몸 전체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진다. 물이 쏟아지듯 자른 스팀다. 산고 끝난 어미 낙타가 부지런히 할기 시작한다. 성공적 출산이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낙타의 출산

낙타 배가 자꾸 불러오고 짖이 부풀어 올랐다. 출산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에 기다린 지 3개월. 처저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전에 급한 연락이 왔다.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낙타가 새끼를 낳고 있었다.



취 있는 듯 하더니 몸 전체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진다. 물이 쏟아지듯 자른 스팀다. 산고 끝난 어미 낙타가 부지런히 할기 시작한다. 성공적 출산이었다.

시설

'50배 과태료' 선거법 개정논의 할 필요 있다

대검이 선거법중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무부에 개정 권의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 조항을 일단 환영하며 이밖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몇몇 선거법 조항들을 함께 손볼것을 제안한다.

한은 이제 그 실효도 약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또 정당의 공천을 신청한 자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정권 및 피선거권의 지나친 제약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조항도 철저적인 처인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위헌소지도 를 뽀뽀러 경쟁자들끼리의 건전한 대결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정년연장검토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10년까지 임금피크제 등을 실시한 뒤 기업연령을 감안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고령화 해결책으로 정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우리의 고령화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대한전선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2년간 연장했으며 대우조선 등 일부 조선업체는 노조가 정년 연장을 올 일간합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이다.

無等鼓

지난 4월 스위스 관광국이 '월드컵 과부 유치 광고'를 냈다. 반라차림의 섹시한 남성들을 동원, 월드컵 기간 남편이나 애인을 TV에 빼앗길 전세계 여성들에게 스위스로 놀러오라고 유혹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축구 중계를 보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들은 앞으로 한 달 이상을 운동 축구에 포위될 수밖에 없다. 행여 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스위스 여행을 꿈 꾸다든지 체널다를 돌무리(?)하지 말고 오히려 푹 빠지는 것이 순편할 일이다.

월드컵 과부

축구에 미쳐있는 남편에게 질린 네덜란드 여성들은 지금 반(反) 월드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여성이 TV 채널을 조정할 권리와 남자들의 오랜 지색(네덜란드 축구대표팀 상징색)을 의복복 세탁을 거부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들은 전쟁터에 내보낸 내 남편, 아들, 애인, 남동생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장면을 중계방송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축구에 빠져 오직 승리를 염원할 것이다. 특히 거친 경기를 보며 남성들의 육체를 즐기는 것도 나쁠 건 없다. 잉글랜드의 원조 풋비남 배캠, 벌써 나이 30에 이르지만 스페인의 영원한 미소년 라울, 아르헨티나의 아이마르, 브라질의 카카, 프랑스의 앙리, 한국이 안정환 등 남편보다 멋진 남성들을 통한 에로티시즘을 즐길 권리가, 여성들에게는 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